Since 1972 — Chuncheon Holy City Movement

전 교회가 전 복음을 전 시민에게 전하여
행복한 가정 · 건강한 교회 ·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춘천성시

창간 1998년 9월 15일
2019. 1. vol. 229

춘천성시화운동본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춘천교계 소식을 빠르고 생생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기사내용 미리보기

01 성시화
2019년을 맞으며

02 특집
새해 인사말

08 기획
3.1독립운동과 그리스도인

09 선교
신사참배 회개기도 여정

10 잠깐
이슬람

11 영화이야기
사도바울

건강이야기
치아 Q&A

교계소식

12 교회소식

알려드려요

후원자 명단



Be Still _ 김용성 작가

후원참여하기
1달에 1번,
커피 한잔의
후원이면
충분합니다.

신협 131-005-937566
농협 172242-51-085114
예금주 춘천성시화운동본부

광고주를
모십니다



문의 033.256.1260

춘천성시화운동본부
발행인 이사장 박인관
부이사장 이수형
춘천기독교연합회장 김종익
발행처 춘천성시화운동본부
강원도 춘천시 금강로 120 302호
033-256-1260 033-257-1260
holycc1972@daum.net

성시화

2019년을 맞으며, 오직 연합만이 답이다

교회는 부득불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본질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세상은 세상 임금 곧 사단이 지배하고 있고 교회는 예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추구하는 본질 자체가 다르다. 세상은 하나님을 버리고 선진국부터 나서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동성애를 비롯해 차별금지와 같은 법을 제정하고 그것이 옳은 양 행동한다. 사람들은 잘못된 인생관, 성공관, 행복관을 가지고 오늘도 몸부림치고 있다. 그런데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과 적대관계를 가지고 있고 진리로부터 떠나 있는 세상을 구원하며 세상을 변화시킬 사명을 위해 부름 받았다. 적대관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을 섬겨야 한다는 점이 특이할 수밖에 없다.

교회들은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죄와 잘못을 깨우쳐 주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로부터 사회봉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세상을 섬기느라 애들을 쓰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은 이 영적 전쟁은 결코 개교회 별로 일대일로 싸워서는 효력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단을 대처하고 동성애나 차별금지, 이슬람 등의 산적한 문제들도 개별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거니와 다음 세대를 키우고 일으키는 분야로부터 사회복지에 이르기 까지 이제는 춘천시와 강원도와 협력하여 풀뿌리 삶의 터전부터 각 분야에 이르는 거룩한 도시, 행복한 도시를 향한 몸부림은 연합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직장선교회를 적극적으로 돕고 시민단체를 육성하며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이 연합하고 성도들의 은사별 재배치가 선결되어야 한다. 이런 일에 연합이 없이는 절대 불가하다. 교회 규모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한 교회가 감당할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들이 연합해야 하고 하여야만 하는 필연성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성시화나 연합의 현실, 성적표는 어떤가? 기독교연합회나 성시화운동본부나 여타 단체들도 매우 힘이 없다. 연합이 안 되기 때문이다. 이제는 선교단체들도 대학 안에서 마음 놓고 전도도 못하는 상황 인데다 이단들이 극렬하게 활동하는 상황이다. 다시 말하지만 답이 없다. 연합해야 산다. 연합해야만 된다. 이 성시신문도 환영도 받지 못하고 잘 읽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소해 본다. 연합해야 한다. 연합해야 상생한다. 연합해야 역사가 일어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나 혼자서 상상해 보았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500여명 되는 목회자와 800여명 되는 장로님들만 성시화 일만인 기도운동에 월 만원씩 내면서 동참한다면 월 1,300만원의 헌금이 들어온다. 그러면 성시화운동본부는 전임 사역자들을 모시고 직장선교회를 세우는 일, 일꾼을 세우는 일, 각 분야에 힘을 실어주며 밀어주는 일을 할 수 있다. 덧붙여 만일 춘천의 7만여 성도들 중에 1만명만 일만원씩의 기도헌금을 한다면 월 1억이라는 재정이 마련되고 이는 생활비도 받지 못하고 악전고투하고 있는 비전교회에 지원을 하며 교회 전체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바탕도 마련되게 될 것이다.

모두가 다 2019년 아니 앞으로의 세상이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비관론을 내놓는 이때이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는 그 빛을 강렬하게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교회들이 연합하기를 호소해 본다. 내 교회를 먼저 돌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연합을 통해 더욱 빨리, 쉽게 함께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새해를 맞아 내놓는 첫 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놓아 본다.

글. 박인관 이사장
(춘천성시화운동본부, 광염교회)

2019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임원

이 사 장 박인관 목사 (광염감리교회)
부이사장 이수형 목사 (순복음춘천교회)
부본부장 이병철 목사 (주항교회)
사무차장 최상도 목사 (사암성결교회)
사무국장 이은정 권사 (주항교회)
재정국장 홍순신 권사 (평화동산교회)
감 사 신성균 목사 (순복음열린교회)
감 사 황병호 장로 (춘천제일장로교회)

춘천기독교연합회

2019년, 다시한번



춘천기독교연합회 회장 김종익 목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2019년 새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다는 것은, 심장이 뛰는 아주 행복한 일입니다. 새로운 계획이 마음먹은 대로 다 되지는 않지만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희망을 품고 한 해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고, 만나로 먹이시고, 마른 반석에서도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게 하사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나게 하시고, 홍해와 요단강을 갈라주셔서 노래하게 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편이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2019년, 새해는 100년 전 나라와 민족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온 국민이 하나로 뭉쳤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3.1절의 깃발을 높이 치켜 올렸듯이,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 구주 예수님의 피 값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건강한 나라와 민족으로의 발전을 위하여, 복음통일 한국을 이루어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에 예수님의 생명수만 흐르게 하기 위하여, 건강하고 거룩한 강원도와 춘천시를 위해, 기도하고 협력하는 멋있는 춘천의 모든 연합기관과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해에도 춘천의 430여 교회와 500여 명의 목회자들과 700여 명의 장로님들과 5만 이상 되는 성도님들 그리고 기독교 선교단체, 사회단체, 복지기관과 춘천시와 강원도, 대한민국과 북녘 동포에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먹는 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2019 춘천기독교연합회 임원

회 장	김종익 목사 (춘천광명장로교회)	회 계	남준섭 장로 (순복음춘천교회)
수석부회장	오의석 목사 (순복음조은교회)	감 사	차덕수 목사 (강원침례교회)
총 무	김수일 목사 (감사장로교회)	감 사	김영래 장로 (신성감리교회)
서 기	최재훈 목사 (꿈꾸는순복음교회)		

춘천장로연합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춘천기독교장로연합회 회장 심의섭 장로

2019년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 땅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춘천기독교장로연합회는 45년 전 교파를 초월한 춘천 관내 장로님들이 친목과 춘천의 복음화를 위하여 뜻을 함께 하였던 초교파 연합회로서 그동안 성장을 거듭하면서 400여 개의 교회와 700여 분의 장로님들로 구성된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의 땀을 아끼지 아니하셨던 믿음의 선배님들과 지금도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올 한 해도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시간도 함께하여 주셨듯이 2019년도 주님의 변찮는 사랑과 은혜로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다는 믿음 속에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의 소망이 되고, 어둠을 밝혀주는 희망의 등불이 되는 이 한 해가 되길 소원합니다. 2019년도에도 춘천 도성의 성시화를 위하여 사랑의 씨를 뿌리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2019년 춘천기독교장로연합회 임원

회 장	심의섭 장로 (춘천중앙감리교회)	회 계	김영래 장로 (신성감리교회)
수석부회장	김인수 장로 (춘천중앙성결교회)	감 사	권순흥 장로 (순복음춘천교회)
총 무	최돈식 장로 (석사감리교회)	감 사	최승기 장로 (광장감리교회)
서 기	함몽인 장로 (충인성결교회)		

춘천목회자연합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춘천목회자연합회 회장 조용아 목사

샬롬! 춘천목회자연합회 회장 조용아 목사(춘천성광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2019년 새해 밝은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첫 달이 훌쩍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춘천목회자연합회는 춘천기독교연합회 산하 춘천의 목회자들의 친교 공동체로 해마다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4월에 춘천목회자들의 국내 성지순례, 8월에 8·15 광복절기념연합예배, 그리고 춘천 거주 은퇴목회자 위로회가 그 사업입니다. 올해에도 이 사업을 충실히 감당하며 춘천의 목회자 여러분들을 섬기며, 또 춘천기독교연합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사역들에 적극 협력하여 섬길 것입니다. 그리하여 간접적으로나마 춘천의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의 사역이 평안하며, 춘천의 성시화를 위해 매진할 수 있도록 후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것입니다.

이 2019년 새해에도 춘천의 모든 주님의 몸 된 교회와 기관, 그 사역을 위해 헌신하시는 사역자들과 목회자들 가운데 늘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아래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2019 춘천목회자연합회 임원

회 장	조용아 목사 (춘천성광장로교회)	서 기	김용기 목사 (푸른초장감리교회)
수석부회장	이수형 목사 (순복음춘천교회)	회 계	김선일 목사 (소양성결교회)
총 무	차성희 목사 (샘밭침례교회)		

춘천홀리클럽

"자녀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춘천홀리클럽 회장 조정일 장로

춘천홀리클럽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짐"이라는 비전으로 활동하는 평신도 선교단체입니다. 이를 위해 "춘천성시화를 위한 기도, 평신도 영성 회복, 교회와 지역, 나라사랑"을 목적으로 1996년 6월 8일 창립되었습니다. 2019년 사역으로는, 올해 중반에 100주년을 맞는 홀리클럽 새벽기도회가 변함없이 계속 됩니다. 그리고 회원 소속교회 방문예배가 동성에, 무슬림, 차별금지법, 복음통일에 관한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6회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자립교회 성도와 인근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한방진료, 치과검진, 이미용 봉사, 노력봉사)도 6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홀리클럽 새벽기도회는 섬기는 교회에서 새벽기도회를 마치고, 오전 6시 반에 지역 교회를 방문하여 기도한 후 조찬 교제 나눕니다. 13년간 매월 1회, 100회 가까이 이어오는 동안, 소천한 분도 계시지만, 홀리클럽 새벽기도회에 참석하는 회원은 잊지 못할 은혜의 시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100회 기도회 때는 "자녀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특별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으나 기독교인에게는 조국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와 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때, 선배 기독인들이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나라를 지켜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었듯이, 홀리클럽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 교회, 내 고장, 내 나라를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쓰임 받기를 기도합니다.

2019 춘천홀리클럽 임원

회 장	조정일 장로 (광장감리교회)	서 기	이세형 장로 (석사감리교회)
수석부회장	석광훈 장로 (석사감리교회)	회 계	한정호 장로 (동부장로교회)
사무국장	백부열 장로 (신성감리교회)	감 사	류주영 장로 (석사감리교회)
사무부국장	유영충 장로 (안디옥감리교회)	감 사	김지영 안수집사 (순복음춘천교회)

CCC

2019 춘천CCC 새로운 50년



춘천CCC 대표 안장렬 목사

춘천CCC 대표 안장렬 목사입니다. 성시신문 지면을 통해 샬롬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저희 춘천CCC로서는 2019년이 의미 있는 해입니다. 춘천 땅에 캠퍼스 민족(성시), 세계 복음화의 꿈과 비전을 심어 온 지 50년이 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눈물과 기도, 사랑과 헌신으로 달려온 춘천CCC는 새로운 50년이라는 도전 앞에 서게 됩니다.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세우는 길, 만만치 않은 요즘 세대들, 그러나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부르심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엡 2:7) 매년 춘천을 찾아주는 청년대학생들에게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육성하여, 민족과 세계로, "여러 세대"에 주님의 자비와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평생 순장의 길을 걷도록 세우고자 합니다.

2019년에도 사람을 세우는 여러 사역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새 학기 신입생 사역, 교육 훈련, 해외 선교 등의 활동들이 학생들을 영적승법가인 순장으로 세워져갈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너무나 노출되어버린 성, 알코올, 인터넷 등의 중독으로부터의 예방과 회복을 돕는 중독 세미나를 기획 중에 있으며, 일터에서의 영적인 삶을 살아내도록 돕는 "일의 영성" 세미나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어렵고 힘든 가정 형편(재정뿐 아니라 부모형제간의 관계의 어려움)에서 자라난 학생들의 건강한 자아상을 찾아주어 이들의 건강한 에너지가 가정으로 흘러들어가 헝클어진 관계를 회복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춘천 성시화의 한 영역을 미약하지만 춘천CCC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와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춘천 CCC

춘천지부 대표 안장렬 목사 **간 사** 박관수 이윤정 장소영 박동인 안진태 김다정 김유진 위성운 권세희 임예진 전주연 지순곤 김예은

JDM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후6장1절)



JDM 춘천지구 간사 박병철

캠퍼스의 새 물결이 필요합니다. 어김없이 새해에도 기독의 전망을 희망적으로 보는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사라져 가고 청년부 모임이 축소되어 가며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청년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심각한 경제난은 청년들을 더욱 위축되게 만들고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의지마저 꺾고 있습니다.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주님 없이 살라고 청년들을 압박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공회 앞에선 베드로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외친 것처럼 캠퍼스에서 세상에서 더욱 미련하게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서처럼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자 더욱 힘쓰는 2019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헌신, 그저 단어가 아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후6장1절)는 말씀처럼 캠퍼스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빛으로의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며, 제자를 양육하는 일에 힘쓰는 2019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캠퍼스 사역에는 춘천의 교계와 모든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춘천은 작은 도시지만 4개의 대학, 3만 명에 달하는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대학 캠퍼스는 하나님께서 젊은이들을 부르시고 세우시며 이 나라와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한 젊은이가 말씀대로 비전을 가지고 제자로 살아간다면 영적 대각성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저 현상을 보고 위축되는 사역이 아닌 주께서 하실 말씀의 새 물결, 영적 각성의 새 물결이 필요합니다. 말씀대로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몸부림치는 젊은이들을 위해 힘내라고 말씀해주세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또 제자를 양육하고자 힘쓰는 젊은이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열방을 향한 비전을 품고 선교적 삶을 살고자 하는 젊은이의 어깨를 도닥여 주고 격려해주세요. 춘천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2019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JDM(예수제자운동) 춘천지부

대표간사 박병철 **간 사** 이승수 김상엽 이진실 이은혜 김은하

ESF

2019년 새 학기 다시 힘을 내봅니다.



ESF 간사 최병진

저는 올해로 춘천에서 사역한 지 4년째 되는 선교단체 ESF 최병진 간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신문지면으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선교단체 ESF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근거해 캠퍼스 복음화, 성서한국, 세계선교라는 슬로건을 목표로 하는 복음주의 학생 선교단체입니다. ESF는 본문 중심의 일대일 성경공부와 공동체 훈련을 통해 말씀으로 사람으로 훈련되어 캠퍼스 복음화를 이루는 제자 공동체를 세워가는 모임으로 이뤄가고 있습니다. 캠퍼스 사역은 날로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9년 새 학기 다시 힘을 내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새로운 캠퍼스의 영혼들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올해는 어떤 학생들을 만나게 하실지 기대와 설렘으로 방학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캠퍼스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더 풍성하고 좋은 소식으로 찾아 뵐 수 있기를 소망해봅니다. 춘천 ESF는 아직 개척 단계에 있습니다. 이 작은 캠퍼스 선교 공동체를 기억해주시고 생각나실 때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9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삶의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GBT

성경번역사역이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GBT(성경번역선교회) 춘천지부 이사장 이병철 목사

안녕하세요? GBT(성경번역선교회) 춘천지부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병철 목사입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GBT(성경번역선교회)는 주님의 위임명령(막16:15, 마28:19-20)을 받들어서 성경 번역선교를 위한 위클리프 국제 연대(Wycliffe Global Alliance)의 회원 단체로서 1985년에 설립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언어로 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전 세계의 여러 성경 번역 단체들과 함께 자신들의 말로 된 성경이 없거나 성경 번역이 중단된 모든 지역에 성경 번역팀을 준비시켜 보내는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220여 명의 GBT 선교사가 25여 개 국가, 87개 종족에서, 70여 개 언어를 번역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춘천 지부는 15년 전에 발족하여 성경번역 사역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도록 지부 차원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GBT에 대한 소식은 매월 발행되는 『난 곳 방언』에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소식지를 받고 싶거나 성경번역 사역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춘천지부 김주미 간사님(010-9109-9218)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성도님들 모두 올 한 해도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전도단

'그를 알고, 그를 알리자'
(To know God, To make him known)



춘천 예수전도단(YWAM) 대표간사 권혁준

1960년에 로렌 커닝햄이라는 한 젊은이에게 하나님께서 파도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청년들이 전 세계 곳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으로부터 예수전도단(Youth With A Mission)이 시작이 되었고 내년이면 6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전도단 춘천지부 역시 1980년대 초반, 하나님을 알고 알리기 원하는 청년들로부터 이 도시에서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2019년 현재 역시, 예수전도단 춘천지부의 주 사역의 대상은 젊은이들입니다. 강원대학교, 한림대학교, 한림성심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 사역, 30대 초반에서 중반까지의 결혼한 아기 엄마들을 대상으로 하는 맘터(마음을 터치함, 맘들의 터 등의 이중 의미)사역, 2016년 12월로 중단되었던 도시를 위한 예배와 중보기도의 장인 화요모임. 이 3가지 주 사역 이외에도, 5월 초부터 진행되는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운동'과 11월에 진행되는 '힌두인을 위한 15일 기도운동' 등 중보기도 사역 등 하나님께서 예수전도단에 주신 고유한 부르심과 창조적인 방법을 통해서 춘천과 온 열방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YWAM(예수전도단)

춘천지부 대표 권혁준 간 사 박두한 이미선 이아름 박세형

IVF

BLESS

춘천 IVF 대표간사 김성한

세계 기독교 시대의 도래를 알린 선교학자 앤드루 월스 (Andrew Walls)는 <세계 기독교와 선교 운동>에서 기독교 신앙의 전개를 살펴봅니다. 기독교 신앙과 문화와의 상호 관계, '번역 가능성'이라는 기독교 신앙의 독특한 DNA가 역사라는 시공간 안에서 어떻게 펼쳐져 왔는지 설명합니다. 월스의 통찰과 지혜는 대학 캠퍼스에서 만나는 2019년 한국 청년들의 삶의 자리와 형편을 이해하는 데 어떤 도움을 줄까요? 먼저, 기독교 신앙은 계속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의 언어와 문화로 번역되고 의미를 획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뜻과 가치를 따라 살려고 하는 이들이 있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선교의 현장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강원 IVF는 2019년에도 계속 춘천의 대학 캠퍼스에서 BLESS -다른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고(B), 하나님의 말씀과 타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L), 이웃을 환대하고 함께 먹으며(E), 내가 가진 자원을 나누고(S), 지금 이곳에서 보냄 받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S)- 라는 선교적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며 운동하려고 합니다. 혐오와 배제의 시대에 여전히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증거 하려는 학생들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IVF(한국기독학생회 강원지방회)

대표간사 김성한 간 사 최인기 손준호 나정수 유효주

DFC

기본에 충실한 2019년



춘천DFC 간사 김연희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연말 2018년을 정리하고 2019년을 계획하면서, 개인적인 면에서나 사역적인 부분에서나 정말 중요한 것은 기본이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찾고, 거창한 것을 계획하기보다 현재 있어야 할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감사함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의 베이스는 식상한 이야기로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늘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행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춘천 DFC의 2019년 사역도 기본에 충실하자는 목표를 두고 진행할 것입니다. 대학 캠퍼스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성실함으로 만나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다해 양육할 것입니다. 캠퍼스의 분위기가 기독교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고 복음에 대해 무관심하여 사역이 어려운 때인 것은 맞지만, 이 시대의 청년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 공허하고, 고민이 많은 세대이기에 복음의 필요성은 더 간절한 때입니다. 미래의 지도자들인 청년들을 위해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전도협회

교회학교를 살리는 일을 돕는 어린이전도협회



어린이전도협회 춘천지회 대표 김마태

할렐루야!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춘천지회 대표 김마태입니다.

2019년은 각 교회의 교회학교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욱더 누리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마18:14)" 말씀의 토대로 그리스도 밖에 잃어져 있는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교회로 인도하는 사역을 전문으로 하며, 범위에 있어서 국제적이고 사역에 있어서는 상호 협조적이며 성격에 있어서는 초교파적인 선교단체입니다.

2019년 어린이전도협회 사역은 이렇습니다. 교사교육은,"3일 클럽 전도자 훈련"(1월), "TCE교사대학"(1-2월), "새소식반 교사강습회"(3-5월), "여름성경학교강습회"(6월), "파티 전도강습회"(4월,11월), "새학기 교사강습회"(12월), 청소년 전도자훈련 CYIA(7월)입니다. 어린이전도 사역은, 3일 클럽, 새소식반, 성경캠프, 파티 전도(어린이날, 성탄절), 학교 앞 전도 등이 있습니다.

현재 복음이 필요한 아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복음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어린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전도하려면 전도할 교사가 필요합니다. 이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리하여 복음으로 어린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려면 교사는 계속적으로 배워야 하며 훈련돼야 합니다. 교회학교를 살리는 일을 돕는 어린이전도협회가 어린이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막막한 교사, 교회학교의 부흥 성장을 기대하는 교회를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춘천남부노인복지관

디아코니아로 어르신을 행복하게 합니다



춘천남부노인복지관 관장 박란이

안녕하세요? 춘천남부노인복지관 관장 박란이입니다. 주님 사랑 듬뿍 받으시는 2019년이 되시기를 기도드리며, 성시신문을 통해 새해인사를 드리게 되어 정말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저희 복지관은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년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부터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따라 "디아코니아로 어르신을 행복하게 합니다."라는 비전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1만 3천여 어르신께 매일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로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관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 됩니다. 태권체조를 대표로 하는 건강교육프로그램, 영어·일본어·중국어 등 외국어 중심의 교양교육 프로그램, 색소폰, 하모니카, 가곡 등의 문화예술프로그램 및 켈리그라피· 동화 구연 등의 취미 여가를 포함, 어르신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60여개의 평생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자녀를 돌보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 프로그램으로 "황혼육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손자녀를 돌보는 어르신들의 육아 스트레스 해소를 돕고, 올바른 손자녀 양육 스킬 교육을 통해 양성평등한 일·가정 양립의 출산친화적인 문화에 어르신이 먼저 기여 하실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17년 8월 이후 노인인구 14%가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선진국들은 앞으로의 초고령 사회는 이미 어르신이 자원이며, 이 자원을 어떻게 발전시키는가에 따라 국가 경쟁력이 달라진다고 바라봅니다. 저희 복지관도 어르신을 매우 귀중한 자원인 선배시민으로 바라보고 어르신이 소유한 다양한 경험과 연륜과 지혜들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는 "고령사회를 이롭게 하는 시니어 연대" 발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이 지역사회의 의료, 교육, 문화, 인권, 환경, 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삶의 지혜와 연륜을 통한 문제발견과 개선과 앞장서실 수 있도록 경청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중한 사랑과 기도로 복음 확장을 위해 수고하시는 성시신문께 감사드리며 저희 복지관도 항상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춘천연탄은행

연탄에게는 슬픔이 없다



제자감리교회 춘천연탄은행 밥상공동체 정해창 목사

지난해 춘천연탄은행과 밥상공동체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춘천 지역 교회들과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 그리고 춘천시민들의 따뜻한 후원으로 볼런티어 5,000여 명과 함께 1,000여 세대에 사랑의 연탄 35만 장과 쌀 3만 Kg을 나눌 수 있었고, 하늘밥상을 통해서 어르신 15,000여 분에게 따뜻한 밥상을 차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춘천 외곽 구석구석까지 추운 어르신들이 없도록 40만 장의 연탄 나눔과 하늘 밥상을 통해 2만여 분들에게 따뜻한 밥상을 차려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짜 계획과 꿈은 연탄과 밥상을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 곳곳에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복음의 거룩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낮은 곳, 어두운 곳, 눈물이 있는 곳을 찾아가 예수의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아프리카에는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다."라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춘천연탄은행은 우리 시대 사회적 약자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서 함께 어깨동무하며 걸어가는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나 혼자 가면 외롭게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즐겁게 멀리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9년 예수님이랑, 성령님이랑, 말씀이랑. 건강이랑, 행복이랑 친구가 되어서 일 년 내내 동행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연탄은 사라지기를 꿈꾸지 않는다 연탄은 생명이 따뜻하길 바랄 뿐이다
연탄이 자기 몸을 불사르다 사라지는 것을 사람들은 재가 되었다고 말한다
연탄재는 연탄의 눈물이다 연탄은 사라짐을 슬퍼하지 않는다 생명을 살리는 기쁨만 있을 뿐 연탄에게는 슬픔이 없다

- 정해창 좁시 '연탄에게는 슬픔이 없다'-

강원CBS

2019년 강원CBS 사옥 건축을 본격화



강원CBS 본부장 하근찬

정말 빠릅니다. 강원CBS 본부장으로 발령받은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7개월, 2019년도 어느새 두 달째 흘러갑니다. 방송 사역은 물론이고 강원 CBS 선교센터 재추진, 열악한 경영상황 개선 _ 그런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낼 수 있을까,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섰던 사님(思念)도 7개월 전 엣일이 돼 버렸습니다. 이젠 걱정을 기대로 탈바꿈시키야 할 당위, 현실에 부딪혀 있습니다.

2019년 강원CBS는 먼지 답보상태에 빠졌던, 강원도의 선교 중심 역할을 하게 될 선교센터를 포함한 강원CBS 사옥 건축을 본격화하려고 합니다. 춘천시 서면에 마련될 선교센터는 올 봄 착공예배를 거쳐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 하반기쯤 하나님께 올릴 예정입니다. 이 선교센터는 단순한 업무공간이 아니라 교회와 지역사회, 강원도를 하나로 묶는 '선교센터'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하나님의 중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신천지를 비롯해 하나님의 교회,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중국 동방지파, 이슬람 세력의 확산 등 이단과 영적 전쟁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지키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또 정선과 영월, 평창 등 군(郡) 지역에도 소규모 중계소를 설치해 전파를 통한 하나님의 복음을 구석구석 전하겠습니다. 지역 교계 목사님들의 말씀을 TV를 통해 강원도 전역으로 확대하고, '신은 죽지 않았다' '바울' 등 각종 영화와 작은 교회를 살리는 '숨 콘서트'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더 큰 시련으로 닥쳐올지도 모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마19:26)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강원CBS는 달려 나가겠습니다.

춘천 YMCA

'시민과 함께 걸어온 70년, 미래 30년'



춘천YMCA 사무총장 남궁제정

2019년은 2.8 독립선언 및 3.1운동, 상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한 춘천YMCA(1949.2.10.) 창립 70년, 원산YMCA(1925.7.25.) 창립 9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춘천YMCA는 춘천 시민과 함께 걸어온 70년을 뒤돌아보고 미래 30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시작점에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후 평화를 염원하는 기도와 희망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강원도와 춘천시에 '평화의 바람, 생명의 물결'이 YMCA 지도자들과 기독 청년과 청소년들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춘천YMCA는 친부모와 함께 살지 못하는 아이들을 지원하는 **가정위탁지원센터**, 임대아파트 단지의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은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 학대를 받아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학대피해아동쉼터**, 가출하여 머무를 곳이 없는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 청소년들의 마음의 어려움을 돕기 위한 **상담복지센터**, 청소년들의 문화 활동 및 민주시민 교육을 지원하는 **청소년수련관** 등을 중심으로 사업과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참정권 및 시민 주권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자치역량 강화 교육 및 단체 협력, 북 강원도 원산YMCA 복원 준비, 국제 NGO 및 YMCA 협력 강화 및 미래의 대안적 삶을 위한 덴마크YMCA 교류, 평등을 지향하는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한 춘천YMCA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YMCA 목적문이 지향하고 있는 것처럼 강원도와 춘천의 젊은이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함께 배우며', '역사적 책임의식 개발', '민중의 복지 향상', '새 문화 창조', '하나님 나라 건설'에 소명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춘천통일광장기도회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히 13:3)



통일광장기도회 춘천대표, 베드로선교센터 조은제 선교사

통일이 시급한 이유는, 극한 고통 속에서 악한 체제에 붙잡혀 있는 북한의 성도들과 동포들을 속히 구출해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주님을 자유롭게 경배하며 사명을 다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현 상황은, 저분들을 구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저분들과 같이 거짓의 악한 체제 속에 갇혀버릴 위험에 처해있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 현실입니다.

2019년에는 하나님께서 일어서시기를 더욱 간절히 사모합니다. 때문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폐하지 말고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겠습니다. 매월 넷째 월요일 저녁 8시 석사교 밑 야외공연장에서 통일광장기도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한시적으로 추가하여 느헤미야시국기도회로 화요일 저녁8시에 베드로선교센터 입구의 카페 공지로268 2층 연구소에서 모입니다.

기아대책

떡과 복음으로 세계 복음화를 향한 교회의 진정한 선교 파트너 기아대책



기아대책 강원대표 지성택

2019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아름다운 호반의 도시 춘천에서 교회와 지역사회를 섬기시는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1989년, 외국의 원조를 받는 구호기관으로 있었던 현실에서 한국 최초로 외국에 주는 구호기관으로 시작한 기아대책이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교회와 성도님들의 선교 파트로서 세계 선교의 한 부분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묵묵히 주님이 명령하신 열방의 선교를 위한 부르심에 성도님들과 교회가 함께 하여 2019년 기아대책 강원본부는 다음과 같은 지원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몽골 게르 지원사업**: 열악한 환경에 처한 가정과 어린이를 파악하여 추운 겨울에도 따뜻하게 거할 수 있는 게르(집)을 제공합니다.
2. **네팔 적정기술 수자원 지원사업:** 민족사관고등학교 학생들과 매년 수자원적정기술을 활용하여 정수기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습니다.
3. **라오스 영계장 지원사업:** 라오스 현지교회와 성도님들의 자립을 위한 것으로 축사와 병아리 입추를 통해 교회의 자립을 돕는 지원사업입니다.

이와 같은 모델들을 통해 저희 강원본부는 현지국가의 필요와 요청에 적극 부응하고 떡과 복음의 가치를 위해 강원도 내의 여러 후원자의 사랑으로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후원자 여러분! 떡과 복음으로 함께 협력하길 원합니다.

춘천북부노인복지관

행복이 가득한 복지관



사랑나눔춘천지회 춘천북부노인복지관 관장 박재호

춘천북부노인복지관이 개관 한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한 해도 동안도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11월 27일 추운 겨울 진행되었던 개관식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그동안 회원 어르신들이 3,500여 명이 등록하여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함께 노인복지관의 역할뿐 아니라 지역복지의 허브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춘천북부노인복지관은 사랑과 섬김의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어르신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 갈 것입니다. 사랑이 가득한 복지관, 기쁨이 넘치는 복지관, 소망이 있는 복지관을 만들어 가기 위한 비전을 가지고 어르신들이 선배 시민으로써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경험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신노년 문화 운동을 펼쳐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위기에 처한 조손가정 지원 사업과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고령자 무료 취업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통해 행복한 노후를 위해 보낼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둘 것입니다.

또한 1.3세대가 함께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세대공감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세대 간의 화합과 소통 교류를 통해 사랑과 존경의 문화를 조성하고 세대공감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복이 가득한 춘천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어떤 환경과 장애물을 만나도 축복으로 생각하고 축복으로 말하고 축복으로 살아가는 한 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우리 복지관의 미션은 모든 사람의 가치, 그리고 행복 실현입니다.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최중범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최중범입니다.

2019년 새해가 밝은지 어느덧 한 달이 되어갑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 올해 개관 3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복지관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시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복지관은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장애인과 가족을 섬기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일해 왔듯이 앞으로 30년, 그 이상을 장애인과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우리복지관은 다음의 세 가지 핵심가치를 중점으로 일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존중합니다."

"우리는 항상 소통합니다."

"우리는 변화를 주도합니다."

지난 한 해는 우리복지관이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26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함께 했던 월드비전이라는 큰 울타리를 벗어나 이제는 지역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과 춘천중앙교회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마 9:17)" 라는 말씀처럼 우리복지관은 이제 새 부대에 담겨지는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향기를 내뿜으며, 더 힘차게 역동적으로 일하며, 지역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리는 강원도장애인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춘천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

복음적 평화 통일은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입니다



쥬빌리 춘천대표, 주향교회 이병철 목사

안녕하세요? 새해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는 피흘림이 없는 복음적 평화통일을 위해 교회와 선교단체가 연합하여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쥬빌리는 "복음적 통일은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모토를 갖고 있습니다. 전국에 14개 도시에서, 그리고 해외 16개 도시에서 피 흘림이 없는 복음적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6월이면 전국에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지체들이 모여서 '쥬빌리 코리아 기도큰모임'을 갖습니다. 또한 다음세대를 통일코리아의 주역으로 세우기 위해서 한동대학교와 쥬빌리가 MOU를 맺고 '주니어 쥬빌리 통일캠프'를 연 1회식 개최하고 있으며, 청년 쥬빌리를 통일과 그 이후를 준비하는 연합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춘천에서는 7년 전에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유일한 분단국가의 유일한 분단도(道)인 강원도의 수부도시 춘천, 이 춘천은 6.25 전쟁 당시 인민군을 3일 동안 막아냄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낸 곳이라는 평가를 받는 곳입니다. 그런 만큼 춘천은 피흘림이 많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에스겔 골짜기와 같은 곳인데, 에스겔 골짜기에는 마른 뼈가 많았다는 것은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었겠습니까? 그것은 전쟁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우상숭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와 전쟁은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춘천과 같이 피 흘림이 많은 곳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복음적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 여겨집니다. 가장 피 흘림이 많았던 곳에서 가장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섭리이기도 합니다.

춘천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는 매월 둘째 주일이 지난 월요일 저녁 7:15에 모여서 찬양과 말씀 그리고 기도회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각 분야에 통일 분야의 전문 강사나 탈북민들의 생생한 간증과 목회자들을 초청하여 말씀을 듣고 시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회를 갖습니다. 피 흘림이 없는 복음적 평화통일을 위해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오셔서 함께 피흘림이 없는 복음적 평화통일을 위해서 기도의 불꽃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월드비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월드비전 강원지역본부장 최창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월드비전의 일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2019년 한 해 월드비전 강원지역에서는 "지금도 국내와 해외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아동과 가정에 우리는 그 맡겨진 소명에 따라 충성되게 일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라는 기도를 매일매일 드리고 고백하며 주님께서 사용하시기 좋은 기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월드비전의 핵심가치에 따라 행동할 것입니다. 우리의 핵심가치는 6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 헌신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응답합니다.

크게 4가지 사업을 중점 진행하게 되는데,

국내 사업 : 꿈 지원사업과 아동권리사업, 지역복지사업을 운영하며 특히 위기아동지원사업을 강원도 전역에 홍보를 통해 지원하는데 주력하게 되며, 아침 조식지원 학교를 15개 학교로 대폭 늘려 지원하게 됩니다.

국제 개발 및 구호 사업 : 우간다에 자립마을을 지원하여 교육과 식수 위생, 아동보호, 보건영양, 소득을 증대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옹호 사업 : 정책 옹호와 옹호 캠페인, 세계시민 교육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북한 사업 지원을 통해 취약아동의 영양개선과 농업 씨감자 생산 사업 등 농업개발사업과, 지역개발 및 긴급구호사업을 진행하여 민간차원에서의 대북지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월드비전은 교회와 함께하는 기관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함을 입어 그 능력으로 가난과 소외로 공통 받는 사람들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기획

3 · 1독립운동 100주년 특별 기획 시리즈 ①

3 · 1독립운동과 그리스도인

2019년은 3 · 1독립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에 따라 각 분야에서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 3 · 1독립운동의 정신을 되새겨보려는 노력이 많다. 춘천성시에서는 기독교계에서 일어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나라사랑 민족사랑 그리스도사랑의 교훈을 현재에 타산지석으로 삼고자 "3 · 1독립운동 100주년 특별 기획 시리즈"를 6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1회_ 3 · 1독립운동과 그리스도인
2회_ 3 · 1독립운동과 기독교회
3회_ 강원도의 3 · 1독립운동과 그리스도인
4회_ 강원도의 3 · 1독립운동과 기독교회
5회_ 강원도 그리스도인들의 독립운동 I
6회_ 강원도 그리스도인들의 독립운동 II

3 · 1독립운동은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의 이름으로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면서 시작된 이후, 이에 호응한 각계각층의 참여로 거의 1년간 지속된 거국적인 항일민족독립운동이다.

민족대표 33인의 탄생

국내에서는 1918년 12월부터 1919년 1월 사이에 독립운동을 일으킬 계획을 세웠고 있었다. 그 하나는 손병희 · 권동진 · 최린 등의 천도교 측에서 수립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송진우 · 현상윤 · 김성수 등 중앙학교 측이 세운 것이었다. 권동진 · 오세창은 1918년 12월 초부터 한국이 독립을 도모할 호기라고 생각하고 먼저 최린에게 연락하였고 최린이 즉시 합류하였다. 권동진 · 오세창 · 최린 등이 손병희를 만나 상의한 데 이어, 송진우 · 현상윤 · 최린 · 최남선 등이 독립선언 진행방법 등을 검토하였다. 운동은 원칙적으로 대중화 · 일원화 · 비폭력으로 할 것을 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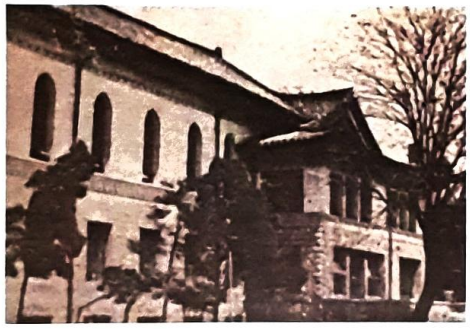
1919년 1월 하순 최린이 한용운을 만나 쾌히 승낙을 받음으로써 불교측과의 합동이 이루어졌고 이어 승려 백용성도 가세하였다. 기독교측의 계획은 처음에는 두 갈래로 시작되었다. 하나는 이승훈을 중심으로 한 평안도 장로회계통의 움직임이고 다른 하나는 서울의 감리교계통을 중심으로 한 움직임이었다. 이에 최종적으로 기독교 측 16명, 천도교 측 15명, 불교 측 2명으로 모두 33명이 독립선언서에 서명하기로 결정하고 총대표에 손병희를 추대함으로써 민족대표 33인이 결정되었다.

이중에서 16명의 기독교인은 김창준, 길선주, 박동완, 박희도, 신석구, 신홍식, 양전백, 오화영, 유여대, 이갑성, 이명룡, 이승훈, 이필주, 정춘수, 최성모, 홍기조(가나다순)이다.

독립선언서 낭독과 독립만세운동 전개

1919년 3 · 1독립운동 때 발표된 기미독립선언서 제작, 서명, 인쇄, 배포 등은 천도교에서 총괄하였다. 천도교 측의 원고 지침에 따라 최남선이 기초를 작성하고, 민족대표 33인이 서명, 천도교 인사 오세창이 인쇄 총책임을 맡았으며, 천도교 직영 인쇄소인 보성사 사장 이종일이 총실무를 담당했다. 2월 27일 극비리에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독립선언서 2만 1,000장이 인쇄되었고 28일 아침부터 전국각지로 전달되었다.

원래 독립선언은 고종 국장일인 3월 3일에 발표하기로 하였으나 3월 1일로 변경했다. 국장일에 거사하는 것은 불경(不敬)이라 피하고 3월 2일은 주일이라 기독교 측에서 피하였기 때문에 결국 3월 1일로 확정하였다. 민족대표 33인 중에서 서울에 있던 20여 인은 2월 28일 밤 제동 손병희 집에서 거사계획을 최종 점검했다. 3월 1일 오후 2시 탑골공원(당시 파고다공원)에서 독립을 선언하려던 예정을 변경하여 같은 시각에 태화관에서 발표하기로 결정하였다. 많은 학생들과 민중이 탑골공원에 모이면 혹시 불상사가 생길까 염려한 때문이었다.



▲ 3 · 1독립운동 당시 태화관 모습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에 모이기로 했던 조선의 민족대표 33인은 늦게 온 사람이 있어 오후 3시가 되어서야 길선주, 유여대, 김병조, 정춘수를 제외한 29인이 모였다. 그들은 태화관(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소재)에서 조선이 독립국임을 선언하였다. 일제의 잔인한 무단통치 10년 만에 숨죽여 지내오던 한민족이 세계만방에 자주독립을 선언하는 엄숙한 시간이었다. 민족대표들은 독립을 선언하는 한용운의 간단한 식사(式辭)를 듣고, 그의 선창으로 대한독립만세를 제창한 뒤 모두 자수하여 일경에 연행되었다.

한편 탑골공원에서는 정오경부터 강기덕 · 김원벽 등의 연락으로 남녀 중등학교 이상의 학생 4~5,000명이 모여 독립식전을 기다렸다. 오후 2시가 되자 팔각정 단상에는 큰 태극기가 나타나고 독립을 선언하는 식전이 개막되었다. 경신학교 졸업생 정재용이 단상에서 독립선언서를 읽어 내려갔다. 낭독이 끝날 무렵 독립만세 소리로 천지가 진동하고 공원에는 서울 시민과 지방에서 고종 국장을 참배하러온 사람들로 꽉 메워졌다. 학생과 시민들은 공원을 뛰쳐나와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질서정연하게 시위 행진하였다.

비폭력방법으로 전국으로 확대

전국 각지에서 국장에 참례하러 상경한 민중과 서울시민들이 참여하여 날이 저물도록 시위를 계속했다. 군중의 일부는 종로에서 광교 · 남대문 · 남대문역을 거쳐 의주통으로 꺾어 프랑스공사관으로 행진했고 다른 일대는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만세 부르는 등 해질 무렵부터는 교외로 번져나갔다. 군중은 공약삼장에서 천명한 바와 같이 질서를 유지하며 가장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민족의 독립의지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일제는 무력으로 진압하려 하였다. 경찰과 헌병 이외에도 보병 3개 중대와 기병 1개 중대를 동원해서 군중을 해산시키려 했다. 이날 민족대표 29인을 비롯한 주모자 130여 인이 체포되었다.

3월 1일에 시작된 독립만세운동은 날이 갈수록 전국 각지로 파급되어 우리 역사상 최대의 민족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독립운동의 전국적인 확산은 천도교나 기독교의 조직을 통한 경우, 고종 국장을 참관하러 상경했던 지방의 유림이나 학생이 귀향하여 계획한 경우, 인근 지방의 운동에 영향을 받아 일어난 경우 등 다양하였다. 그리하여 3월 중순까지는 전국 13도는 물론 제주도까지 파급되었다.

박은식의 「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 의하면 3 · 1독립운동에 참여한 시위인원은 약 200여 만 명이며, 7,509명이 사망, 15,850명이 부상, 45,306명이 체포되었으며, 헐리고 불탄 민가가 715호, 교회가 47개소, 학교가 2개소였다고 말하고 있다. 일본의 집계는 이와는 다른데 조선총독부의 공식 기록에 따르면 106만 명이 참가하여 진압 과정에서 553명이 사망, 12,000명이 체포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들은 분명한 사건만을 집계하였으므로 실제 시위는 이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



▲3 · 1독립운동 당시 덕수궁 앞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는 모습 (국사편찬위원회)

특히, 일제에 의한 비인도적 만행과 보복 학살이 기독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널리 알려진 수원 제암리교회, 인근의 수촌리 · 화수리교회 그리고 평남 강서반석교회나 맹산교회, 만주의 노루바위교회 사건 등은 그리스도인(기독교인)들에게 저지른 일제의 잔혹한 만행이었다. 그러나 이런 희생과 수난을 통해 명실상부한 종교적 형식을 갖춘 한국기독교가 '민족교회'로서의 기능을 감당한 가장 뚜렷하고 광범위한 사건이 바로 3 · 1독립운동이었던 것이다.

이 거족적인 독립운동은 일제의 잔인한 탄압으로 비록 많은 희생자를 낸 채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대내외적으로 우리 민족의 독립정신을 선명히 드러낸 바가 되어, 우리 근대 민족주의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다.



글: 김동정 장로
(신성교회, 가톨릭관동대 교수)

선교

신사참배 80년, 회개기도 여정을 다녀와서



▲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들이 1938년 9월 10일 제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한 뒤 단체로 평양 신사를 찾아가 허리를 숙여 절하고 있다. [출처] - 국민일보

2018년은 신사참배 80년이 되는 해였다.

1938년 9월 9일에 조선 예수교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9월 10일에 평양에서 성명문을 내고 다음과 같이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우리들은 신사는 종교가 아니라 그리스도교의 교리에 위반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국가의식인 것을 자각하여, 또한 이에 신사참배를 솔선 시행하여, 국민정신총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 하에서 전장의 후방의 황국신민으로서 충성을 다할 것을 기약한다. 이에 성명한다. "

쇼와 13년9월10일 조선 예수교장로회 회장 홍택기

이 선언 후 일동은 평양신사까지 가서 신사참배를 하였다. 이 시점에서 이미 카톨릭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등 대부분의 교단도 신사참배에 굴복하여, 이 날로 한국의 거의 모든 교회가 신사참배에 굴하게 되었다. 그리고 3개월 후인 12월 14일에서 16일까지 '신사참배의결선언'을 받아 한국기독교교회 대표자와 당시의 한국에서의 일본의 대표자 6명이 함께 손을 잡고 일본에 건너가 다섯 신사를 방문하여 참배하는 일이 있었다.

다음은 1939년 1월에 「鳥居」朝鮮神職會에 실린 기사의 일부이다.

"아치와 조선신궁 궁사는 일찍이 전향 후의 기독교의 동향에 세심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무엇보다 먼저 기독교 각 장로회 대표자로 이세신궁의 신역에 참배케 함으로써 신궁 존엄을 체득케 하고, 또한 황국신민으로서의 진정한 자각을 촉구하는 것이 제일이라 결심하여, 오노 정무총감, 미나미 총독에게 그 취지를 피력한바 크게 찬의를 얻는 데 이르렀다. 그 후 기독교 각파에 접하게 되고 마침내 이것이 실현을 보기에 이르러 다음과 같이 대표자를 선정한 뒤 작년 12월12일 경성역을 출발했다.

장로교 의장 홍택기씨 차련관, 부의장 김길창씨 부산

감리교 총리사 김종우 경성, 전총리사 양주삼 경성

성결교 학원원장 이명식 경성

경성기독교 연합회장 니와 세지로 경성

인솔자 조선신궁 궁사 아치와 야스히코

수행 조선신궁 주전 고니시 다케오

일행은 14일에 모모야 일릉에 참배한 뒤에 가시하라 신궁에 참배, 15일에 이세신궁의 성역에 내궁, 외궁의 앞에 배례하여 황국신민의 의식에 감격했다. 그 뒤 나고야시로 향하여 아쓰다신궁에 참배했다. 16일은 도코의 메이지신궁에 참배한 뒤 야스쿠니신사 앞에 영령에게 감사하고, 황군의 무운장구를 기원했다. 이리하여 17이에 미야기를 요배한 뒤 체경 중이던 오노 정무총감에게 인사하고 중앙조선협회의 환영다과회에 임석하여, 이에 의의있는 참배단을 행하였다."(「鳥居」朝鮮神職會 1939년 1월, 제9권 제1호)

신사참베라는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하고 죄악의 사슬을 끊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일본의 사역자가 함께 80년 전의 그 일정을 따라 2018년 12월 14일~18일까지 일본의 5개 신사를 방문하여 중보기도를 했다. 우리 일행은 일본의 노주무교수님의 가이드 하에 이 회개기도 여정을 밟으면서 기도하는 중에 '어떻게 이토록 철저하게 거짓 우상에게 참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신사참베는 결코 국민의례가 아니라 철저하게 우상에게 굴복하며 숭배하는 것으로 십계명의 첫 계명을 어기는 죄였다. 신사참베는 한국기독교회 전체를 일본의 지배와 권위 아래 종속시키고, 거짓된 신들 아래 무릎 꿇게 한 일임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그 배후에는 이 세상의 거짓된 신(神)인 사탄이 존재하며, 한국과 일본의 교회를 속박하는 일이었음이 너무나 자명하였다.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었다. 다니엘이 자기 조상들의 죄와 자신들의 죄를 철저한 회개를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런 강도(剛度)의 회개를 요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이 회개기도의 여정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의 기도를 드림과 아울러 한일 간의 영적인 묶임과 사탄의 결박을 끊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한일 간의 영적인 문제를 푸는 것은 반드시 남북한의 영적인 회복과 부흥에도 깊은 연결 고리가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다. 우리의 회개기도 여정이 한국교회와 북한, 그리고 일본에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부흥을 위한 작은 밑거름이 되길 소원하며 이 회개기도의 여정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글. 이병철 목사
(성시본부 부본부장, 주항교회)

100주년

3·1삼일절

연합예배 및 특별기도회

일시 2019년 3월 1일(금) 오후7시

장소 순복음춘천교회(이수형 목사 시무)

강사 박용규목사(총신대 역사학 교수)

춘천기독교연합회

2019 연합 제직세미나

일시 2019년 2월 10일(주일) 오후3시

장소 예사랑침례교회 (홍요셉 목사 시무)
(춘천시 안마산로 34-6)

강사 황교안 전총리

대상 각 교회 제직 및 성도

기독교한국침례회 춘천지방회



이슬람의 알라는 기독교의 하나님인가?

지금 한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문제 뿐 아니라 이념분쟁 등으로 총체적으로 어려워져서 다른 곳에 눈을 돌릴 엄두를 못 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눈을 나라 밖으로 조금만 돌려 보면 세계는 지금 이슬람과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문화와 예술과 과학과 경제까지 모든 분야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가 보장되는 그렇게 살기 좋고 평화스럽던 유럽이 무슬림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테러가 일상화되다시피 하는 불안한 사회가 되어 버렸다. 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여 이슬람 인구가 급증하자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에 달하게 되자 정치인들은 난민 찬성파와 난민반대파로 갈라져 싸우게 되었고 난민반대파의 지지가 급격히 상승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유럽인들은 기독교 정신에 근거한 윤리관으로 소위 돌레랑스(관용)의 문화를 보여 왔지만 세계 5대 강대국의 반열에든 독일의 총리를 4회 연속 연임하던 앙겔라 메르켈 여사는 무슬림들을 많이 받아들인 탓에 국민들의 반발이 심해 지지도가 급락하여 결국은 말려진 임기만 마치면 정계를 은퇴하기로 선언한 상태다.

이제 우리가 이슬람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하면 유럽처럼 이무런 대책 없이 무너지는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슬람에는 "타끼야(Taqiya)"라는 특별한 교리가 있어서 목숨이 위태로울 경우에는 거짓말을 허용하던 것이 시대가 바뀌면서 '어쩔 수 없을 때는 거짓말해도 된다'고 하다가 더 나아가서는 '필요할 경우에는 거짓말이 허용되는'것으로 진화되어 실제로 적용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슬람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무슬림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타끼야에 속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무슬림들은 할랄 음식만 먹는다' 또는'이슬람에서는 여성들을 우대한다' 혹은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다' _ 지면 관계상 더 이상의 언급을 피하고자 한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가장 크게 성공한 타끼야가 있다면 그것은 '이슬람의 알라는 기독교의 하나님'이라는 타끼야 이다. 물론 이 거짓말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보조 타끼야가 몇 개 있는데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첫째: 하나님, God, Deos, 알라(Allah) 등은 언어가 다를 뿐 같은 의미라는 거짓말,

둘째: 중동의 창조주, 전능자, 절대자, 유일신을 지칭하는 엘(El) 신에 아랍어의 정관사 'al'을 붙이면 '알엘' 혹은 '알엘라'인데 줄어서 알라(Allah)가 되었다는 거짓말,

셋째: 아랍,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알라(Allah)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꾸란의 알라와 같은 신이라는 증거라는 거짓말,

넷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이삭을 통해서 전달받은 기독교인, 유대교인들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전달받은 무슬림들은 결국 아브라함이 섬기던 그 신을 서로 다른 이름으로 섬기는 것일 뿐, 동일한 신이라는 거짓말,

다섯째: 이슬람은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예수 등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선지자들을 기독교인들보다 더 존경하지만 예수를 신으로 섬기는 것만 반대할 뿐 동일한 창조주를 섬기는 같은 종교라는 거짓말,

이런 거짓말에 속아서 이슬람의 알라를 기독교의 하나님과 같은 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성경과 꾸란을 비교, 연구해 보면 알라와 하나님은 완벽하게 다른 신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찾을 수 있다. 이름은 같을 수 있지만(同名異人) 영이 아래와 같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첫째: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를 저주받을 불신자라고 하는 악한 영(꾸란5:17)

둘째: 인류 구원의 유일한 돌과구인 십자가를 부인하여 인류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영(꾸란4:157)

셋째: 예수는 '장차 무함마드'가 올 것을 알리는 자라는 거짓 영(꾸란61:6)

넷째: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선언하는 적그리스도의 영(꾸란19:88-91)

이런 내용을 미리 알고 있어야 이슬람의 영에 속지 않고 개인의 자유와 가정과 교회 및 국가 안보를 지키고 후손들에게 평화로운 미래를 물려줄 뿐 아니라 이미 거짓 영에 속고 있는 무슬림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슬림들은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들인데 그들을 속여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악한 영의 정체는 밝혀 줘야 할 것이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무슬림들이 눈을 떠서 참 진리를 발견하고 천국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글. 이만석
(한국이란인교회, 무슬림선교훈련원장)



영화 이야기

사도 바울
Paul, Apostle Of Christ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 바울에 관한 영화는 의외로 거의 없었다. 유튜브에 간신히 올라 있는 것은 매우 조악하고 감동과 은혜가 없는 단순 게뭉적인 동영상일 뿐이다. 그러한 중에 뒤늦게나마 제대로 작품성 강하고 임팩트 있는 감동과 은혜의 영화로 나오게 되니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바로 수많은 영화의 조연으로 영화에 강한 조미료 역할로 유명한 미국 드라마 <왕좌의 게임>, 2010년 리메이크된 <벤허> 등에 출연한 제임스 플크너가 바울 역으로 열연을 하고, 그를 옆에서 보좌하며 기록하여 사도행전을 남기게 된 의사 누가(Luck) 역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예수 역을 맡아 역사적 캐릭터로 남은 제임스 카비젤이 나오는 매우 탄탄한 캐스팅과 제대로 조율된 극적 긴장미로 영화적 완성도가 우수한 앤드류 하얏트 감독의 <사도 바울>(Paul, Apostle Of Christ)이다!

AD 67년 로마제국의 '네로' 황제는 자신이 저지른 대화재의 원인을 기독교도들에게 덮어 씌우고 사회혼란 해결의 희생양으로 삼아 박해를 가한다. 기독교인들은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동물들의 먹이로, 혹은 매달린 채 불에 타 거리의 가로등으로 희생되며 처절한 하루하루를 보낸다. 영화는 이를 매우 극 사실적이고 리얼하게 표현하며, 그들의 아픈 역사를 재현한다. 크리스천의 희망이 되어 줄 리더 바울은 감옥 속에 갇혀 다가올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고, 이에 누가는 크리스천들의 길잡이가 되어 줄 바울의 사역을 글로 전파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의사의 신분으로 감옥에 잠입한다. 이는 죽음도 두렵지 않게 만든 믿음이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한다.

수많은 의사들도 포기한 딸의 병으로 고심 중인 로마 장교는 바울을 감시하면서 의사인 누가에게 결국 치료를 의탁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로마 신들에 대한 믿음의 혼란을 겪는 장면도 매우 긴장감 있게 전개하고 있다.

갈수록 심해지는 박해와 고초 속에서도 바울은 오로지 '사랑'을 주창하며 스스로 모든 것을 감내하고자 한다. 영화 속에서 누가와 바울은 동지애, 형제애를 나누며 진한 감동을 선사한다. 자신을 박해한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복수심을 버리고 "모두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던 두 사람은 영화 <바울>을 통해 복음 전파에 대한 중요한 깨달음과 메시지를 전한다.

바울의 일생은 너무나 험난하고 광범위하여 한 편의 영화로 그대로 옮기는 일이 쉽지 않았다고 한다. 성경적인 자료를 기초로 꼼꼼하고 방대한 고증을 거쳐 완성한 대본에 배우들의 신심 깊은 열정으로 탄생한 작품이라고 한다.

앤드류 하얏트 감독은 "영화 속 세계와 캐릭터들의 팔레트를 만들 때도 성경에 근거하도록 애썼다. 그게 제일 중요했다, 그러고 나서 역사적 자료들을 끌어오고 전통들을 도입했다"라고 밝혔다. '바울'의 삶에 관한 성경 구절들을 쏟아서 영화에 반영해내었고, 모든 조사 결과를 목회자들부터 학자들에 이르는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이처럼 제작진은 성경 속 실화에 근거한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 무엇보다 사전 조사에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다고 전했다.

영화를 본 네티즌의 반응은 비기독인들까지 거의 열광적인 칭찬 일색이다.

앞으로 이와 같은 강한 완성도와 작품성을 가진 기독교 영화가 계속적으로 나오길 기도한다.

글. 김춘배 기자

건강 이야기

치아 Q&A

직업이 치과의사이다 보니,
누구를 만나든지 대화의 귀결점은 치아에 대해서다.

Q1. 치과마다 다른 처방을 하는데 이유를 모르겠다.
치과마다 일반의원마다 다른 처방전 일 수 있다. 궁극적으로 같은 성분의 약이다.

Q2. 자기가 원하는 것만 치료해주면 되는데 다른 것들도 치료하라고 한다.
아파서 오는 환자에게 진단과 치료 계획은 의사의 권한일 수 있으나, 환자도 선택하면서 조율이 가능하다. 결국은 건강한 치아 유지를 위해 치료를 한다. 치아는 붙어 있기 때문에 충치가 먹거나 풍치가 진행되면 몇 개의 치아가 한꺼번에 문제를 나타낸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치료해야 예후가 좋다.

Q3. 왜 치료시간이 길고, 한 치아에 여러 번 하나? 한 번에 못해주나?
특히 신경치료는 치아 속에 신경을 끊어내어 치료하기 때문에 많이 아파하고 중단하는 경우가 있다. 여러 번 완전히 소독하고 치료가 끝나면 아픈 것도 사라지고 오래 쓸 수 있다. 보철을 해야겠지만.

Q4. 왜 스켈일링하면 이가 시린데 계속하라고 권하느냐?
치아에 프라그(치태)가 생기면 아프지는 않는데 냄새나고 피가 난다. 스케일링을 하게 되면 치아면에 있는 프라그가 치아 세척기로 떨어지고 원래의 치아면이 나타난다. 심한 프라그가 있는 경우 주변에 뼈가 녹아서 심한 치근노출이 생길 수 있다. 이때 미지근한 물로 양치하고 따뜻한 음식을 먹는 것이 예후에 좋다.

Q5. 치아관리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치아관리는 열심히 닦는 것도 좋지만, 일 년에 3-4번씩 주기적으로 내원하여 건강한 치아를 유지시켜 주는 것이 좋다. 3.3.3, 하루에 3번 이상, 식후 3분 전에, 3분 동안 부드럽게 닦아주면 건강한 치아유지는 기본적으로 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습관 중 찝찝대는 일이나 이쑤시개 심하게 휘젓는 일은 안 해야 한다. 한번 없어진 치질이나 치아뼈는 저절로 생기기 어렵다. 정기적인 치과검진으로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시길 바래본다.

글. 서은아 장로(세정치과의사, 석사감리교회)

교계소식

2019 신년교례회 열려



2019 신년교례회가 춘천기독교연합회(김종익 목사) 주관으로 1월 10일(목) 오전11시에 성광장로교회(조용아 목사)에서 열렸다. 1부 예배에는 수석부회장 오의석 목사(순복음조은교회)의 사회, 부회장 심의섭 장로(중앙감리교회)의 대표기도, 강원CBS소년소녀합창단의 특별찬양이 있었다. 이어 회장 김종익 목사(광명장로교회)의 신년인사말씀이 있었고, 권오서 목사(춘천중앙감리교회)의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라(왕상9:1-14)"의 제목으로 설교가 있었다. 직전회장 신재원 목사(새춘천교회)에게 공로패 증정이 있었고, 총무 김수일 목사(감사장로교회)의 광고, 신재원 목사의 축도로 예배가 마무리 되었다. 2부에서는 총무 김수일 목사의 사회로 춘천목회자연합회장 조용아 목사(성광장로교회)의 환영사, 이재수 춘천시장과 이원규 춘천시의회 의장의 축사가 있었다. 이어 교계 선교단체 사회복지기관의 소개와 인사가 있은 후, 성광장로교회의 섬김으로 애찬이 있은 후 마무리 되었다.

홀리클럽 순회예배



홀리클럽 순회예배가 1월 20일(주일) 오후2시에 광장감리교회(원기배 목사)에서 있었다. 강사로 이만석 목사(한국이란인교회)가 초빙되어 "이슬람의 영을 분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홀리클럽 조정인 장로(광장감리교회)는 "이슬람에 대한 경각심으로 이만석 목사님을 초대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강의의 핵심 내용은 춘천성시본호 10쪽 "잠깐!"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쥬빌리 85차 춘천모임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 85차 춘천모임이 1월 21일(월) 오후7시15분에 주향교회(이병철 목사)에서 있었다. 강사로 초빙된 이한나 목사(오픈도어, 고 김익두 목사 손주며느리)는 "남편의 순교, 탈북과 북송, 감옥에서의 복음전도와 기도 응답으로 병고침"등을 간증하여 순수한 복음적 신앙으로 도전을 주었다. 86차 모임은 2월 11일(월) 오후7시15분에 정규재 목사(서울강서쥬빌리, 강일교회)가 초빙되어 열린다.

탈북민 하나원 도시체험



하나원 종교와 도시체험행사가 한정협 주최, 춘천기독교연합회(김종익 회장) 주관으로 1월 26일(토) 오전10시에 한마음침례교회(김성로 목사)에서 있었다.

성탄트리점등예배

춘천기독교연합회(회장 김종익 목사) 주최, 주관으로 12월 2일(주일) 오후4시에 춘천역 광장에서 성탄트리점등예배가 있었다. 서기 최재훈 목사(꿈꾸는순복음교회)의 사회, 부회장 조정인 장로(홀리클럽 회장, 광장감리교회)의 대표기도, 강원CBS소년소녀합창단의 특별찬양이 있었다. 이어 회장 김종익 목사(광명장로교회)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눅2:10~14)"란 제목의 설교가 있은 후, 이재수 춘천시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총무 김수일 목사(감사장로교회)의 광고 후, 회장 김종익 목사에 의해 춘천시장에게 이웃돕기 성금 전달이 있었다. 직전회장 신재원 목사(새춘천성결교회)의 축도로 예배가 마무리 되고, 성탄트리점등이 있었다.

춘천홀리클럽 오순절교회 봉사활동 가져



춘천홀리클럽(조정인 회장) 회원들은 1월 27일(주일) 오후에 오순절교회(김지훈 목사)를 방문하여 추곡리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한방진료, 치과진료, 미용봉사하는 시간을 가졌고, 나무나르기와 장작 패기등 교회 공동체를 돕는 시간도 가졌다.

취재/사진. 이은정 사무국장

교회소식

온누리교회



청지기 헌신예배 & 세미나 개최

2019년 1월 20일(주일) 오후 2시예배는 청지기 헌신예배가 드리졌다. 이 날 강사는 박인관 목사(광염교회,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이사장)이 초빙되어 은혜와 도전의 말씀을 전해주었다. 이어 21일(월)부터 23일(수)까지 총 요 직분자 청지기 세미나가 열렸는데, 세분의 강사가 초빙되어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 참석한 총 요 직분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감사하며 충성스럽게 감당하겠다고 다짐하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청지기의 삶을 헌신하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다.

초등부 어린이 베트남 단기선교



초등부 어린이를 중심으로 한 15명의 단기 선교팀이 1월 14(월)-19일(토)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베트남 호치민 지역을 다녀왔다. 이번 단기선교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집짓기와 전도 집회등을 감당했다. 참여한 팀원들은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온누리교회는 다음세대들이 세계선교를 위해 비전을 품고, 나갈 수 있도록 이 일을 계속 감당해 나갈 계획이다.

취재 | 명예기자 최규성 목사 (온누리교회)

주향교회

장로교단 지역교회 연합 제직 세미나



장로교단 지역교회 연합 제직 세미나가 1월 13일(주일) 오후4시30분부터 저녁9시까지 주향교회(이병철 목사)에서 개최되었다. 강사는 임종구 목사(대구 푸른초장교회)가 맡아 장로교의 좋은 영적 유산에 대한 역사와 직분자들이 가져야 할 덕목들을 강의하여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 이 날 세미나에는 감사교회, 예담교회, 장자교회, 주향교회, 춘천교회, 춘천우리교회, 화목교회의 제직들이 참여하였다.

취재 | 명예기자 이은정 권사(주향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캄보디아 대사 방문 및 다문화 가족 초청 송년행사



지역사회를 위하여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고 있는 순복음춘천교회(담임 이수형 목사)가 "캄보디아 대사 방문 및 다문화 가족 초청 송년행사"를 지난 12월 22일(토) 본당에서 개최하였다. 롱 디맛체 주한캄보디아 대사, 이제수 춘천시장을 비롯한 김희수 2군단장, 하근친 강원CBS본부장, 심홍수 2군단 군목, 장로회, 다문화가정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 날에는 캄보디아 국왕 모하세나 훈장 수여식이 있었는데, 외국인에게 주는 최고의 훈장으로 캄보디아 국방부와 정부에 기여한 공로와 지난 11월 캄보디아 강원CBS 소년소녀합창단 공연에 감사해서 이수형 목사가 훈장을 받았다.

2019 신년축복성회

한별 목사 '풀림의 기적을 경험하라' 말씀 선포



순복음춘천교회(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이수형 목사)에서는 "한별 목사 초청 2019 신년축복 부흥성회"를 1월 13일(주일)부터 16일(수)까지 가졌다. "풀림의 기적을 경험하라(마16:19)"란 주제로 한별 목사(서울대치순복음교회, 순복음대학원대학교 총장)가 초빙되어 은혜와 축복의 말씀으로 한해를 열었다. 이번 성회에는 새벽과 저녁예배에 "기도의 역사가 나타난다(행12:5-10)", "눈물로 끌라(사38:1-6)", "엄두를 내라(마11:12)", "하나님의 음성으로 끌라(시95:7)", "빛으로 끌라(요1:1-4)", "기름부음으로 끌라(마25:1-13)", "성령의 검으로 끌라(엡6:16-17)"라는 제목으로 한 별 목사의 뜨거운 열정이 가득한 말씀이 선포되어 마음에 큰 울림과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다.

취재 | 명예기자 정종승 목사(순복음춘천교회)

순복음열린교회

퇴계동 강원대 외국어 아카데미 운영



순복음열린교회(신상균 목사, 강원대 인문학부 영어영문학과 교수)에서는 매주 화,목요일 저녁과 토요일 오전 시간에 재능기부로 운영되는 '퇴계동 강원대(KNU) 외국어 아카데미가 운영된다. 이달 초에 문을 연 아카데미는 강원대의 국립대 육성사업(PoINT)의 일환으로 대학에서 지원을 받아 운영을 시작했다. 강사는 신교수를 비롯해 외국인 유학생으로 영어 3명, 중국어 2명, 우즈베키스탄어 1명 이다. 아카데미는 국제화 시대에 맞춰 다양한 외국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어 시작되었고, 3개 외국어 외에도 몽골 인도네시아어를 배울 수 있다고 한다. 현재 49명이 참여하고 있다.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신청을 통해 무료로 배울 수 있다. 자체 제작한 교재와 시중교재를 활용한 초급과정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중고급 과정까지 세분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취재 | 명예기자 신상균 목사(순복음열린교회)

그말씀양문교회

사랑의 연탄 기증 배달



지난 1월 19일(토)에 그말씀양문교회(엄기홍 목사)는 사랑의연탄운동본부에 3천장을 기증했다. 그말씀양문교회 성도들은 1,500장을 근화동 지소득 가정에 직접 배달하였다.

취재 | 명예기자 엄기홍 목사(그말씀양문교회)

알려드립니다

일일 등록 문의 033.256.1260

춘천플리클럽 (플리클럽 정기기도회)
일시 매 짝수달 셋째주 화요일 오전 6:30
장소 지도 목사님 또는 임원교회 순회 시행
회비 현금으로 진행
http://cafe.daum.net/cchcity
(춘천플리클럽)

춘천성시합창단 단원수시모집
정기연습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장소 사랑감리교회
문의 010.2529.6193 (이기범 단무장)

춘천성시무용단 단원 수시모집
일시 일주일에 두번 오전반, 저녁반
장소 부안길 68(일동 B
문의 010.3180.5330 (지도 김귀선)

춘천플리댄오 사모합창단 모집
대상 목회자 사모, 연령제한 없음
문의 010.6378.2261 (지휘자)

교회음악(지휘)스터디 모집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12시
장소 후원 2동 주인센터 뒤
(부안초교 근처)
시문 피아노, 교습소

일본선교회(기독동아리)회원 모집
일시 매주 토요일 10:00 영산 및
춘천본지 출주 산행
문의 010.8798.8732 (정학수)
http://cafe.daum.net/cgmm

교역자 축구 선교회 회원모집
포이맨
일시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장소 공지천 천디구장
문의 010.5372.6200 (지용찬 목사)

목회자 축구 회원 모집
일시 월-토요일 매일 오전 6시
장소 공지천 축구장
문의 010.5596.3702 (총무 최재명 목사)

한마음 학구회
일시 매일아침 7시30분
장소 더좋거문학구(후평동지시점삼거
회비 월 4만원
문의 010.4306.3818

합기도 선교회원 모집
대상 목회자 및 자녀와 성도
장소 합기도선도관(박물관 앞)
문의 010.3585.3620 (이정규 목사)

행복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 목욕(춘천지역기관설치 제1호)
65세 이상 치매, 중풍, 장애 등 요양보호사 등등이 필요하신 분
문의 010.7757.4872

만들레 종보기도회
일시 매주 화요일 저녁8시
장소 와이신협 3층 회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춘천성시화운동을 위해 후원하신 모든 분들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개인

가천홍 김옥자 김은주 김동현 고순덕 고정희 곽혜옥 곽 환 국주영 권경애 권어림 권영자 권용인 권혁자 권혁재 권현정 김경순 김경애 김경희 김관수 김교성 김금교 김금란 김기영 김도희 김매순 김명희 김문수 김미경 김미라 김미라 김미숙 김민섭 김보경 김복심 김복자 김상욱 김상희 김생수 김성희 김세환 김수연 김수일 김숙희 김순덕 김순옥 김순월 김순희 김연숙 김영관 김영명 김영수 김영순 김영일 김영태 김영희 김예은 김옥선 김옥선 김용배 김용기 김원중 김은아 김은희 김정자 김정미 김정숙 김정애 김정의 김정희 김종숙 김종옥 김종은 김종익 김종찬 김종희 김주봉 김주혁 김지영 김지훈 김추옥 김춘화 김춘희 김태균 김학자 김현주 김현철 김형옥 김혜란 김화분 나정희 남궁영숙 남궁자 남준섭 남화은 노길자 노은미 노정호 류현구 문은천 문현숙 민경원 민병임 민병임 박갑술 박건섭 박금화 박금희 박노항 박덕남 박동환 박민규 박명관 박문순 박미선 박미자 박미정 박민순 박병화 박상준 박상혁 박선옥 박소영 박순배 박예자 박영호 박옥화 박은경 박은혜 박인관 박정애 박종일 박지인 박지혜 박지환 박춘자 박필상 박혜성 박 희 방진선 배미정 배진철 배한나 백광일 서경숙 서묘석 서성진 서순옥 서연숙 서은아 서현애 성숙자 성완경 성화숙 손인규 손임순 손학균 송갑수 송미화 송수정 송영인 송정심 송창근 신건호 신경자 신금호 신달호 신동경 신미연 신성균 신안섭 신영선 신옥섭 신옥자 신은수 신종길 심규항 심효선 안순연 안종계 안한나 안현주 양봉남 양재순 양혜경 어금옥 엄근혜 엄기중 엄기홍 엄혜련 여경구 연승홍 연정희 염은희 오성남 오재영 오홍금 오홍수 용애홍 용영옥 원병일 원선미 원예숙 원유미 원화숙 원희정 유 근 유동일 유병준 유상교 유성현 유용근 유재란 유정순 유정희 유희자 윤금숙 윤기춘 윤성자 윤예자 윤영기 윤은미 윤은옥 윤정녀 윤정희 윤학범 윤홍목 이가현 이광재 이광일 이규현 이기자 이기환 이대만 이동현 이명순 이무식 이문희 이문희 이미경 이미영 이미숙 이병일 이병연 이상만 이상숙 이선일 이성도 이성숙어소영 이숙희 이순자 이승희 이연화 이영규 이영문이영은 이영진 이옥순 이완례 이용숙 이원일 이윤규이윤주 이은경 이은정 이인숙 이재곤 이재선 이정미 이종윤 이종헌 이주영 이지영 이지은 이진주 이현희 이홍훈 이태우 이하경 이현식 이현아 이혜옥 이효민 이희화 임덕수 임미희 임소희 임수경 임순희 임병용 임병광 임무선 임은희 임인숙 임재철 임현용 장기영 장소영 장지원 장진순 장창순 장형상 전윤배 전정희 정계지 정국환 정규식 정미경 정미선 정복례 정복희 정선문 정성옥 정우진 정유빈 정은순 정은주 정은하 정인선 정인숙 정인순 정재인 정종숙 정주형 정지혜 정진호 정진호 정치용 정현우 조경자 조기숙 조남진 조돈산 조상균 조성경 조소현 조양숙 조원순 조은비 조정삼 조종현 조진경 조현욱 주영호 주신자 지은성 차경자 차재욱 채재관 천향호 최광우 최귀숙 최귀순 최돈식 최명기 최문수 최미혜 최민희 최선이 최선혜 최선희 최성현 최순희 최승경 최승태 최승화 최연화 최영달 최영순 최영희 최예섭 최옥순 최은영 최은숙 최은순 최은영 최인숙 최재홍 최정락 최종대 최종인 탁광희 하은옥 한건영 한명수 한순득 한원순 한정순 한정연 한희현 함종현 허순영 허 엽 허인영 허정자 현연희 현재용 홍순복 홍영숙 홍의표 홍인숙 홍춘애 홍택기 홍혜림 황금심 황병찬 황은주 황정숙 황태홍

후원교회

강원침례교회 거성침례교회 그말씀양문교회 금산교회 나눔성결교회 동신장로교회 사랑의교회 사랑성결교회 새춘천교회 석사감리교회 소양제일교회 순복음열린교회 순복음제일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북교회 신성감리교회 아이교회 영마오교회 예사랑교회 예수촌교회 옥산포침례교회 온누리교회 우두감리교회 주의승교회 주찬양교회 주향장로교회 축복교회 춘천광명교회 춘천광명교회 춘천그리스도의교회 춘천동부교회 춘천명성교회 춘천예담교회 춘천우리교회 춘천은혜교회 춘천일신교회 춘천제일감리교회 춘천제일장로교회 춘천침례교회 춘천평화교회 한빛교회 한울성림교회 화목교회 힘듦교회 후평제일교회

후원기관 및 사업체

JDM 춘천와이신협 영광한의원 매일관광 행복재가요양기관 건강한사회를위한시민연대 아가갤러리 베드로선교문화센터 밀도비전 설곡산기도원

※ 명단에 누락이나 오차가 없을 수 없으니 연락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 033-256-1260

춘천성시신문을 계속 배송 원하시면, 이름과 주소를 문자로 남겨 주세요 (033-256-1260)